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수현* 강연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연구대상은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교회에 출석하는 고등학생 212명이며,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 병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와 영적 안녕과 공존병리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이룬다.

연구결과를 통해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는 신앙 활동으로 인하여 차이가 났는데, 이는 종교생활 및 영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적 안녕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공존병리 문제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영적 안녕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중심단어 : 청소년,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영성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7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12일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김수현(2014년 2월, 지도교수: 강연정)의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I. 여는 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의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약 3,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8%에 이르렀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이른다고 한다.¹⁾ 실제 청소년들은 학습보다는 게임이나 음악 감상을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유해 매체물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2013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부터 성인까지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중독인구 수가 220만명에 달하는데, 연령별로 보면 유아동 7.3%로 15만7천명, 청소년 10.7%로 75만4천명, 성인 6.0%로 129만명으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청소년 중독률 또한 10.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중독률(4.1%)이 초, 중학생(2.1%)보다 높게 나타났다.³⁾ 이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이유를 Suler는 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불안감을 통제하게 되고, 둘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셋째, 물리적으로는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서 부모로부터 분리 및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모험심을 충족시킬

1)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정책보고서(2013.6), 2014년9월30일 해당사이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71>

2)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인식도 연구”, 연구보고서(2010.10), 해당사이트: <http://www.prism.go.kr/>

3)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및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2013.6) 2014년 9월 30일 해당사이트: <http://www.msip.go.kr/>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좌절감을 편하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⁴⁾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와 진학 등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발달과정으로 인해 자연스레 빚어지는 정체성의 혼란, 사춘기로 인하여 가족 내 역할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높은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 반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놀이 문화와 여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을 선택하게 되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동안 자신의 현실 문제를 잊는 것이다.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의하면 대체로 중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TV나 게임 등 특정대상에 집착하게 되면서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한다. 인터넷 중독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종합하면 인터넷 자체의 속성, 개인의 특성, 가정적 요인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⁵⁾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혼란, 대인관계 부적응, 학업이나 직무수행의 장애,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동, 그리고 비행이나 범죄행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⁶⁾ 정신과 전문의나 청소년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이 수면부족, 체력저하, 슬프고 우울한 기분, 대인기피 경향, 고립감, 낮은 자존감, 좌절 내성의 부족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⁷⁾ 청소년기는

- 4) J. R. Suler, "Psychotherapy in Cyberspace: 5-Dimension Model of Online and Computer-mediated Psychotherapy,"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 no.2(2000): 151-160.
- 5) 주애란·박인혜, "중학생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스트레스 및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 한국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제7권(2005): 37-57.
- 6) M. D. Griffiths,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 no.5(1999): 246-255.
- 7) F. Iftene, & N. Roberts, "Internet Use in Adolescents: Hobby or Avoidan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9, no. 11 (2004): 789-790.; 남영옥·이재모,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보호요인",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제13권2호(2006): 22.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과정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으로 병리적 증상을 경험한다면 성인들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이 높은 불안과 우울증상,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면, 심각한 정신병리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과 정신병리의 보호 요인으로 영적 안녕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신성만 등은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에서 영적인 힘이 중독으로 인해 상실된 통제력을 생성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증명되어졌고, 최근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비롯한 그 밖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서 영적 안녕이 보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유력한 보호 변인으로 영적 안녕이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⁸⁾ 영적으로 안녕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과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제반사항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영적 안녕은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고, 시련을 견디기 위한 자원이 되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영적 안녕감이 견고할 때 신앙적 자아정체성 및 인생의 개념이 확고해지고, 자기 존재나 삶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갖게 되며, 자아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다. 반면에 영적 안녕감이 깨졌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며 자아존재나 삶 자체에 회의가 나타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⁹⁾ 영적 안녕감을 갖는데 신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적 안녕감은 초월적 존재와 관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¹⁰⁾

8) 신성만 외,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제12권 5호(2011): 1613-1628.

9) Craig W. Ellison, “Spirituality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 no. 4 (1983): 43-49.

10) 한경옥 ·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제19권(2012): 298.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 및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로서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대상자의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2. 선행연구 개관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외 연구로는 Ray와 Ksir의 종교 유무와 신앙생활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¹¹⁾ 국내 연구로는 임향숙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있는 청소년보다 우울이나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음을 밝혔고,¹²⁾ 김옥련은 기독교 신앙이 우울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기독교인보다 비 기독교인이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¹³⁾ 정숙희와 신성만은 인터넷 중독과 영적 안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영적 안녕의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

11) O. Ray & C. Ksir, *Drugs, Society, and Human Behavior*, 10th ed.(New York: McGraw-Hill Book Co., 2004).

12) 임향숙, “아버지와의 관계와 종교가 청소년의 우울성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3), 61.

13) 김옥련,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이 우울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3), 83.

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¹⁴⁾ 신성만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의 하위 변인인 실존적 안녕 변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실존적 안녕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영적 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경현 등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안녕의 수준에 따라 나는 세 집단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존적 안녕은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종교적 안녕은 수행불안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⁶⁾ 허현나는 중, 고, 대학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안녕이 자기개념, 삶의 만족도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불안, 우울증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¹⁷⁾ 채유경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 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영적 안녕 중 종교적 안녕이 공격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¹⁸⁾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지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우울 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해진다고 하였다.¹⁹⁾ 이석범 등은 중, 고교 학생들

14) 정숙희 · 신성만,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제6권(2008): 121-148.

15) 신성만 외,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1622.

16) 서경현 외,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과 사회불안”,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제12권3호(2007): 599-617.

17) 허현나,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02), 17-18.

18) 채유경,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 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제17권2호(2005): 189-209.

19) 김지년,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상관 관계 연구: 구미지역 고등학생

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과다 사용군이 비중독군에 비하여 높은 불안과 우울, 가상 공간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고 밝혔다.²⁰⁾ 이대환 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인터넷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우울, 충동성, 강박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 점수는 우울, 충동성, 강박성 점수들과 각각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²¹⁾ 조제성이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남자일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이다.²²⁾ 정현웅과 오세덕은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인터넷 중독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²³⁾

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2005), 25.

- 20) 이석범 외,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학회」제40권6호(2001): 1174.
- 21) 이대환 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과의 연관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제17권1호(2006): 10-18.
- 22) 조제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13권1호(2013): 322.
- 23) 정현웅·오세덕,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제9권2호(2008): 601.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영적 안녕

Burkhardt는 영(spirit)이란 육체에 생명을 주는 힘, 절대자와 연결되는 요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변화와 성장을 초래하는 창조적인 힘, 내적 자원의 근거, 역동적인 힘, 자신과 타인 및 절대자와 관계를 맺게 하는 힘 등으로 묘사되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였다.²⁴⁾ Banks는 인간의 영적 영역을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총합하는 통일된 힘이고, 둘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여 인간의 삶이 성취되게 하는 내적인 힘이며, 셋째는 개인을 초월하여 개인과 신간에 혹은 궁극적인 관심 또는 우주적인 힘과 유대감을 갖게 하고, 넷째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의지와 신앙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였다.²⁵⁾ Ellison은 영성(spirituality)을 인간의 모든 측면에 고루 퍼져있는 힘으로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이라 하였다.²⁶⁾ Hill과 Smith는 영성은 전인건강의 에너지로서 인간이 전인성을 가꾸어가는 요소가 된다고 말하며, 인간이 활기 있도록 돕는 내적 자원이 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²⁷⁾ 함경옥은 기독교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24) M. A. Burkhardt,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 no. 3 (1989): 69-77.

25) R. Banks, "Health and Spiritual Dimension: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0, no. 4 (1980): 195-202.

26) Ellison, "Spirituality Well-Being," 330-340.

27) L. Hill & N. Smith, *Self-Care Nursing: Promotion of Health* (New York: Appleton & Lange, 1985), 186-216.

성을 정립하고 전인적 건강과 안녕 상태를 회복하여 자아통합을 이루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영적 차원에 대한 연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성 또는 종교성이 개인의 적응 혹은 정신건강 및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²⁸⁾

Bruce Hunsberge은 종교성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²⁹⁾ Peterson와 Roy는 종교가 개인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교가 개인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해석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충족감을 확장시키는 경로가 된다고 보았다.³⁰⁾ 또한 Pollner는 종교가 개인에게 정체감을 제공하고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서 직면하게 된 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자원이 되고, 공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적절한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의미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³¹⁾ 일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영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영성이 보호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³²⁾ Seligman은 인간의 성장과 자기실현에 있어 영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신건강에서 영성적 관점이 결핍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영적 공동체에서

28) 한경옥 ·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303.

29) Bruce Hunsberger, Susan Alisat, S. Mark Pancer, & Michael Pratt,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s,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1996): 39–49.

30) L. R. Peterson & A. Roy,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1985): 49–62.

31) M. Pollner,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1989): 92–104.

32) 황환, “영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2.

우울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고,³³⁾ Brink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영성에 대한 접근이 없을 경우, 우울에 더 취약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³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영성의 영향력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청소년에게 영성훈련을 실시한 결과 상태 불안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불문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³⁵⁾ 정신과 의사인 Meier와 Minirth, 그리고 심리학자인 Wichern, Ratcliff는 정서적 문제의 영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이 겪는 정서적 고통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결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감이 인간 문제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³⁶⁾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은 영적 건강상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행동적 표현으로서,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다. 총체적으로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내적 자원이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³⁷⁾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영적 안녕을 ‘인간의 영적 본성(자원, 측면, 특성, 능력 등)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 이웃, 공동체, 자연 등과 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통합과 질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전인적 건강과 안녕의 상태’라고

33) M. E. P. Seligman, “Why is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in *Contemporary Psychoanalyt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ed. R. E. Ingram (New York: Plenum, 1990).

34) T. L. Brink, “Depression and Spiritual Formation,”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4 (1993): 381–394.

35) 김동태, “영성훈련이 청소년의 불안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3), 25.

36)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 안경승 · 이은규 · 강경미 · 한재희 · 박행렬 공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CLC, 2004), 326–327.

37) Johnny Carson and Soeken Grimm, “Hope and Its Relationship to Spiritual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6, no.2(1987): 159–167.

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영적 안녕은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로 두 가지 차원에서 구조화 될 수 있는데, 수직적 차원은 상위존재와의 관계를 타나내며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수평적 차원은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³⁹⁾ 첫째, 실존적 영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 삶의 질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궁극적 가치 있는 경험과 자신, 이웃, 환경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인간의 대인관계는 사랑과 용서, 믿음의 표현에 기본을 두고 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연결된다. 둘째, 종교적 영적 안녕은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안녕감으로서 절대자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은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의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종교적 영적 안녕은 독립해서 설명할 수 없고 실존적 영적 안녕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영적 안녕감은 삶 속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⁴⁰⁾ 영적 안녕감이 견고할 때 성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발견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영적 본성이 건강하지 못할 때 자기 존재나 삶 자체에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영적 본성이 건강하고 영적 안녕감이 확립되어 있어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⁴¹⁾

38) 강연정, “영적 안녕과 전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제13호(2007): 17.

39) Sharon V. Marigliani, “*The Relationship between Asp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Identity Development in Male & Female College Student*” (Ph.D. diss., Seton Hall University, 1996), 491-499.

40) R. F. Paloutzian &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eds. L. A. Peplau & D. Perman (New York: Wiley Interscience, 1982).

41) 한경옥·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310.

2) 인터넷 중독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중독(addiction)은 자연 혹은 인공적인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혹은 만성적인 중독(intoxication) 상태를 말한다.⁴²⁾ 이러한 정의는 그 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주로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물질 중독에 편중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Griffiths와 Hunt는 중독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리적인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이 물질사용으로 인하여 동반되어지고, 사회적 또는 직업적인 기능의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리적인 의존성은 약물이 외에도 도박, 도벽, 성행위와 같은 특정한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³⁾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에서는 행위 중독의 영역을 충동조절 장애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특별한 중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동, 욕구, 유희적 행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보았다. 과거에는 중독의 대상으로 마약, 알코올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약물만을 여겨왔지만, 점차 중독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행동 측면까지 확장되었으며, 병적인 도박, 쇼핑, 게임, TV시청 등 물질이 없이도 중독 장애로 규정되기 시작 하였다.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Goldberg이다. 그는 인터넷을 종전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또는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초조,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금단 현상이 출현하거나 또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

42) R. J.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1, 2nd ed.(New York: John Wiley & Sons Press, 1994).

43) M. D. Griffiths & N. Hunt,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82, no. 2 (1998): 475-480.

적 활동이 손상 될 때 이를 인터넷 중독 장애라고 정의하였다.⁴⁴⁾ 이와 비슷한 시기에 Young은 인터넷 중독을 충동 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DSM-IV에 수록된 병적 도박의 기준을 차용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병적 도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자도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내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강박적인 집착과 금단형상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⁴⁵⁾ 또한 Griffiths는 집착, 긍정적 감정, 내성, 금단, 일상생활의 지장을 인터넷 중독에서 보이는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⁴⁶⁾ 국내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로 박승민 등은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 장애, 내성,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구분 장애, 일탈행동, 자동화되어진 중독적 사고의 모습이라 하였다.⁴⁷⁾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⁴⁸⁾ 이는 인터넷 중독도 기존의 물질 또는 행위 중독과 같이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DSM-V의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상의 부정적 결과를 병적 도박과 같은 행위중독으로 분류하여 진단기준에 포함시키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인터넷 중독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축적된 임

44) I. Goldberg,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on April 20, 2011. Available at: <http://www.cog.brown.edu>; 성한기 · 안경옥,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 지각",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제10권(2005): 475-478.

45)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no. 3 (1996): 237-244.

46) M. D. Griffiths,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no.1(1996).

47) 박승민 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제13권2호(2005): 3-14.

4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2014년9월30일 해당사이트: <http://www.iapc.or.kr/>

상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부록에 추가되었다.⁴⁹⁾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 중독적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에는 어느 하나 만이 아닌 생물학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도덕 내지 영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⁰⁾ Hart는 모든 중독은 영적인 문제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적인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중독의 영적 차원을 무시한 현대의 의학적, 심리 치료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⁵¹⁾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있어서 중독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⁵²⁾

먼저, 중독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죄의 역동성이 그 안에 숨어있다. 끊을 수 없는 습관에 구속된 인간의 의지 안에서 타락한 욕망, 신비한 초월성의 환상, 실존적 불안감과 공허감을 드러내는 중독의 속성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된 본성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들게 되며, 인간의 약한 의지는 중독으로 인하여 굴레가 씌여진다. 죄의 증후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이고, 인간은 이 중독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 등 각종 심리,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⁵³⁾ May는 중독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전환국면에서 자기

49) 김동일 외,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제14권4호(2013): 2144.

50) 김교현, “제1장: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서울: 학지사, 2009), 49.

51) Archibal D. Hart,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온누리회복사역본부 역, 『참을 수 없는 중독』(서울: 두란노, 2008), 250-258.

52)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제15권(2010): 108-109

53)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서울: 이레서원, 2003), 29.

기만과 함께 의지능력의 소멸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처음에는 중독의 대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묵인하며 의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점차 몸, 마음과 영의 반응 능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창의적으로 중독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며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급기야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과 유혹 사이의 갈등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포기한다.⁵⁵⁾

중독은 인간의 욕구가 고착되고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행동, 물질, 사람에게 예속되는 상태로서, 중독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의 대체물과 보상으로 중독물질을 찾은 것이며, 이러한 집착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종의 우상이 된다. Jung은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와 중독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⁵⁶⁾ 알코올에 대한 환자의 갈망은 인간존재의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낮은 차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고, 이것은 중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⁵⁷⁾ 그동안 알코올과 약물 등 중독치료에 많이 활용되었던 12단계의 AA(Alcoholics Anonymous)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신 신적 존재를 믿고 도움을 의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궁극적인 중독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으며,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영적인 힘의 능력을 규정한 것이었다.⁵⁸⁾ 이처럼 영적인

54) Gerald G. May, *Addiction and Grace*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8), 26-31.

55)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111.

56)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108.

57) Carl Jung, “The Bill W. --Carl Jung Letters,” *Revision 10*, no. 2(1987): 21.

58) 강연정,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제15권(2010): 66.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인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다.⁵⁹⁾

3) 공존병리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공존병리(comorbidity) 척도를 개발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할 때, 정신병리의 공존 여부를 살펴보아 통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인터넷 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할 때 찾은 병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전문가들은 정신병리를 함께 진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공존병리 척도 개발을 통해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를 함께 다루어 보다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존병리 개념으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와 같은 대인기피적 성향과 같이 인터넷 중독에 공존하거나 공존의 가능성이 높은 증상들을 통칭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 변인인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을 공존병리로 규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안(anxiety)은 주관적이고 비특이적인 걱정, 염려, 긴장 등의 가끔은 두렵기도 한 정서 상태로서, 위협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외적인 위협보다는 내적인 조절능력 상실로 인해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을 말한다.⁶⁰⁾ Spilberger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보고,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⁶¹⁾ 상태불안이란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으로서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

59)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113.

60) 이해경, “심상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의 금주가능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0).

61) Charles D. Spielberger,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23-82.

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강도가 주관적으로 변화하는 정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태불안은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반면, 특성불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개인의 안정된 성격특성을 말한다.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적용된다.⁶²⁾ Tillich는 불안의 근원이 인간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었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서, 근원적인 불안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소외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에의 용기로서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³⁾

우울(depression)은 슬픔, 상실감, 무력감, 패배감과 같은 저조하고 부정적 기본상태부터 자살충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게 표현되며,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Beck은 우울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에 관한 지각과 평가가 부정적이고, 주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관하여 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도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고적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한다.⁶⁴⁾ 김남희는 다음의 세 가지 증상을 우울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우울은 지속적으로 슬픔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하는 정서적 증상을 동반한다. 둘째, 우울은 자기에 대해 비난과 비

62) 박미하·김은혜,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132-133.

63) 김은정,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17-18.

64) A. T. Beck,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하를 하고 죄의식과 무가치감을 느끼며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가 일어나 일상생활에서의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갖는 인지적 증상을 동반한다. 즉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 자신의 세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보인다. 셋째, 우울은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동반한다.⁶⁵⁾ Neal은 우울증의 신앙적 원인을 하나님과의 멀어짐, 죄와 죄책감, 사탄의 영향, 그리고 이중적인 삶으로 보았다. 이는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신자가 겪을 수 있는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영적 침체로 죄책감, 자포자기 혹은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울인 것이다.⁶⁶⁾ Hart은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에 대해 ‘모든 우울증을 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울증은 명백하게 죄와 연관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⁶⁷⁾

충동성(impulsivity)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 운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능력과 인지과정과의 관계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생겨났다. 충동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는데,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태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향,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 행동을 취하기 전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성 등으로 설명되어진다.⁶⁸⁾ 충동성은 일상행동의 특징을 결정하는 개인적 성격특질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특질로도 볼 수

65) 김남희,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9), 21.

66) Connie W. Neal, *Your 30-Day Journey to Beating the Blues*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1992).

67) Archibald D. Hart, *Counseling the Depressed*, 심상권 역, 『우울증상담』(서울: 두란노, 1996), 36-7.

68) 김효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02), 10.

있는데, Cleckley는 충동성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루는 중요한 특질로서 지속적으로 비행을 행하여 일생동안 반복하게 만드는 성격요소라고 정의하였다.⁶⁹⁾ 더불어 반대되는 개념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충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Logue는 즉시 얻을 수 있는 작은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지연을 감수하여 더 큰 결과를 얻는 것을 자기통제라 정의하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충동성을 언급하였다. 이때의 충동성은 지연을 감수하여 큰 결과를 얻기보다는 즉시 얻을 수 있는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⁷⁰⁾ 이처럼 충동성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참을성의 부족, 중요한 정보나 상황에 집중 못함, 계획된 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행동,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는 변덕스러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공격성(aggression)이란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진다. 공격성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행동, 타인을 해치거나 해칠 수 있는 어떤 행동, 정해진 생물체에 상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반응과 계획된 행동, 생명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공격을 피하려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의도한 행동, 타 유기체에 대하여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유해한 자극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외현적 행동 등으로 설명되어진다.⁷¹⁾ 이러한 공격성에 관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의도가 없이 우연한 실수로만 이뤄진 행동이라면 공격성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Bandura는 사람을 상처내어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상해를 신체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의도까지 포함하였다. 공격성은 실질적

69) H. C. Cleckley,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1967).

70) A. W. Logue,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1995).

71) 정형웅, “인터넷 중독이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2006), 17.

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거나 주고자 하는 공격적인 의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²⁾ 정리하자면 공격성은 적의나 증오와 관계가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 행동 특히 육체적인 타격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런 행동을 하려는 욕구 경향을 의미한다.⁷³⁾ 성경에서는 공격성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품는 것,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것을 표출함으로 죄가 된다고 하였다.⁷⁴⁾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부산시 소재 기독교 학교와 교회의 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자 및 누락 대상자를 제외한 21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12)

변인 유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60	28.3
	여	152	71.7
나 이	17세	26	12.3
	18세	113	53.3
	19세	73	34.4

72)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 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19-20.

73) 양돈규, 『심리학소사전』(서울: 학지사, 2003), 42.

74)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 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20.

교회 출석 여부	예	126	59.4
	아니오	86	40.6
교회 출석 기간	1년 미만	23	10.8
	1년 이상 - 3년 미만	8	3.8
	3년 이상 - 5년 미만	18	8.5
	태어날 때 부터	82	38.7
	기타	24	11.3
	무응답	57	26.9
부모님의 교회 출석 여부	부모님 모두 다님	77	36.3
	아버지만 다님	4	1.9
	어머니만 다님	30	14.2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님	96	45.3
	무응답	5	2.4
구원의 확신	예	101	47.6
	아니오	29	13.7
	모르겠다	77	36.3
	무응답	5	2.4

2) 측정도구

(1)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이진화(201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등 두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각 10개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1, 2, 5, 6, 9, 12, 13, 16, 18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점수를 부여하고, 무응답의 경우 0점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이진화의 연구에서 종교적 안녕 .955, 실존적 안녕 .862, 전체 .937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안녕 .935, 실존적 안녕 .866, 전체는 .935로 나타났다.

〈표 2〉 영적 안녕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 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20	.935
	종교적 안녕	1*, 3, 5*, 7, 9*, 11, 13*, 15, 17, 19	10	.886
	실존적 안녕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935

* 역문항

(2) 인터넷 중독 척도(K척도, Short form: KS-II)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하위변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네 가지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0, 1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점수를 부여하고, 무응답의 경우 0점으로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장애 .764, 가상세계지향성 .644, 금단 .589, 내성 .523으로 전체는 .838을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장애 .723, 가상세계지향성 .782, 금단 .428, 내성 .859로 전체는 .834를 나타내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단과 내성의 신뢰도가 낮은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내성의 신뢰도가 더 높았으며 금단만 신뢰도가 낮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인터넷 중독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 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터넷 중독	인터넷중독 전체		15	.834
	일상생활장애	1, 5, 9, 12, 15	5	.723
	가상세계지향성	2, 6	2	.782
	금단	3, 7, 10*, 13*	4	.428
	내성	4, 8, 11, 14	4	.859

* 역문항

(3) 공존병리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1년에 개발한 인터넷 중독 공존증상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하위변인은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하위변인 마다 각 8문항 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에서 불안 .865, 우울 .870, 충동성 .820, 공격성 .878이며 전체는 .94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 .891, 우울 .865, 충동성 .840, 공격성 .875로 전체 .947을 나타내었다.

〈표 4〉 공존병리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조사도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공존병리	공존병리 전체		32	.947
	불안	1, 2, 3, 4, 5, 6, 7, 8	8	.891
	우울	9, 10, 11, 12, 13, 14, 15, 16	8	.865
	충동성	17, 18, 19, 20, 21, 22, 23, 24	8	.840
	공격성	25, 26, 27, 28, 29, 30, 31, 32	8	.875

3. 연구 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에 따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에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1)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수준

조사 대상자의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및 공존병리의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영적 안녕 수준

영적 안녕 척도는 5점 만점의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68점 정도이며 하위변인 평균은 종교적 안녕이 33점, 실존적 안녕이 36점으로 실존적 안녕이 종교적 안녕 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무응답으로 인하여, 최소값이 문항대비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영적 안녕의 수준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20	68.54	16.209	20.00	100.00
	종교적 안녕	10	33.00	10.001	.00	50.00
	실존적 안녕	10	35.53	8.156	.00	50.00

(2) 인터넷 중독 수준

인터넷 중독 척도는 4점 만점의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하위변인 별 최대값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 15점, 금단 12점, 내성 15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위변인 중 일상생활장애와 가상세계지향성의 문항대비 최소값이 낮은 것은 응답의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인터넷 중독의 수준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전체	15	24.94	6.422	15.00	44.00
	일상생활장애	5	7.89	2.519	4.00	15.00
	가상세계지향성	2	2.70	.970	1.00	7.00
	금단	4	7.85	2.251	4.00	12.00
	내성	4	6.51	2.622	4.00	15.00

(3) 공존병리 수준

공존병리 척도는 4점 만점의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변인의 최대값은 32점으로 모든 변인들에게서 최고점이 보여진다. 인터넷 중독 점수와 같이 공존병리의 평균도 중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공존병리의 수준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존병리	공존병리 전체	32	64.76	16.584	32.00	127.00
	불안	8	17.81	5.147	8.00	32.00
	우울	8	13.83	4.293	8.00	32.00
	충동성	8	16.98	4.873	8.00	32.00
	공격성	8	16.14	5.080	8.00	32.00

2)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적 안녕과 불안,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반해 인터넷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의 경우 t통계값은 2.944, 유의수준 .01에서, 금단의 경우 t통계값은 2.261, 유의수준 .05에서, 내성의 경우 t통계값은 2.987,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공존병리

에서 우울의 경우 t통계값은 -2.006, 유의수준 .05에서, 공격성의 경우 t 통계값은 -2.195,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 평균 결과까지 살펴 볼 때, 남자 집단은 인터넷 중독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으며, 여자 집단은 우울과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남자	60	68.98	13.912	.251
		여자	152	68.36	17.071	
	종교적 안녕	남자	60	33.60	9.082	.544
		여자	152	32.77	10.360	
	실존적 안녕	남자	60	35.38	6.510	-.167
		여자	152	35.59	8.740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전체	남자	60	27.28	5.285	3.416**
		여자	152	24.02	6.610	
	일상생활장애	남자	60	8.68	2.296	2.944**
		여자	152	7.57	2.541	
	가상세계지향성	남자	60	2.85	1.102	1.435
		여자	152	2.64	.910	
	금단	남자	60	8.40	1.897	2.261*
		여자	152	7.63	2.346	
	내성	남자	60	7.35	2.427	2.987**
		여자	152	6.18	2.630	
공존 병리	공존병리 전체	남자	60	61.45	14.542	-1.838
		여자	152	66.07	17.192	
	불안	남자	60	17.17	4.968	-1.147
		여자	152	18.07	5.210	
	우울	남자	60	12.90	3.639	-2.006*
		여자	152	14.20	4.483	
	충동성	남자	60	16.45	4.378	-.988
		여자	152	17.18	5.054	
	공격성	남자	60	14.93	4.333	-2.195*
		여자	152	16.62	5.284	

*p<.05 **p<.01

(2) 교회 출석에 따른 차이

교회 출석 여부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영적 안녕에서 종교적 안녕의 경우 t통계값은 9.79, 유의수준 .01에서, 실존적 안녕의 경우 t통계값은 2.50,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의 경우 t통계값은 -3.105, 유의수준 .01에서, 공존병리에서 우울의 경우 t통계값은 -2.176, 유의수준 .05에서, 공격성의 경우 t통계값은 -2.447,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회를 출석하는 집단에서 영적 안녕의 평균이 더 높고, 반면 우울, 공격성, 금단 평균이 더 낮은 것이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영적 안녕, 금단, 우울, 공격성에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교회 출석에 따른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예	126	74.29	16.177	6.92**	
		아니오	86	60.10	12.096		
	종교적 안녕	예	126	37.62	8.626	9.79**	
		아니오	86	26.24	7.812		
	실존적 안녕	예	126	36.67	8.44	2.50*	
		아니오	86	33.86	7.46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전체	예	126	24.70	6.657	-.693	
		아니오	86	25.31	6.082		
	일상생활장애	예	126	7.96	2.544	.513	
		아니오	86	7.78	2.494		
	가상세계지향성	예	126	2.60	.948	-1.880	
		아니오	86	2.85	.988		
	금단	예	126	7.46	2.304	-3.105**	
		아니오	86	8.42	2.055		
	내성	예	126	6.67	2.777	1.111	
		아니오	86	6.27	2.374		
	공존 병리	공존병리 전체	예	126	62.70	16.258	-2.216*
			아니오	86	67.79	16.68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공존 병리	불안	예	126	17.41	5.377	-1.368
		아니오	86	18.40	4.761	
	우울	예	126	13.31	4.160	-2.176*
		아니오	86	14.60	4.393	
	충동성	예	126	16.53	4.895	-1.614
		아니오	86	17.63	4.795	
공격성	예	126	15.44	4.921	-2.447*	
	아니오	86	17.16	5.165		

** p < .05 ** p < .01

(3) 교회 출석 기간에 따른 차이

교회 출석 기간에 따라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의 경우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종교적 안녕의 경우 F통계값이 21.021, 유의수준 .01에서, 실존적 안녕의 경우 F통계값이 4.228, 유의수준 .01에서, 금단의 경우 F통계값이 2.970,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존병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영적 안녕은 3-5년 출석 집단과 모태 신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고, 금단은 출석 기간이 짧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처럼 교회 출석 기간은 영적 안녕, 금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1-3년 출석 집단은 1년 미만인 그룹보다 더 낮은 점이 특이한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인원 수가 낮아, 출석 기간 대비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평균 점수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 교회 출석 기간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1년미만	23	61.43	9.327	14,069**
		1년이상-3년미만	8	56.25	26,064	
		3년이상-5년미만	18	73.94	12,850	
		모태부터	82	76.09	15,019	
		기타(무응답)	81	66.06	28,323	
	종교적 안녕	1년미만	23	29.13	4.883	21,021**
		1년이상-3년미만	8	26.00	12,593	
		3년이상-5년미만	18	36.50	8,939	
		모태부터	82	38.54	8,121	
		기타(무응답)	81	30.62	9,092	
	실존적 안녕	1년미만	23	32.30	6,670	4,228**
		1년이상-3년미만	8	30.25	14,109	
		3년이상-5년미만	18	37.44	5,554	
		모태부터	82	37.55	7,844	
		기타(무응답)	81	35.45	8,046	

**p < .01

〈표 11〉 교회 출석 기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전체	1년미만	23	24.22	5.877	1,220
		1년이상-3년미만	8	27.88	5,768	
		3년이상-5년미만	18	22.56	5,793	
		모태부터	82	24.76	6,761	
		기타(무응답)	81	25.31	6,512	
	일상생활장애	1년미만	23	7.17	2,424	1,293
		1년이상-3년미만	8	8.88	1,959	
		3년이상-5년미만	18	6.94	2,262	
		모태부터	82	8.06	2,645	
		기타(무응답)	81	7.97	2,475	
	가상세계지향성	1년미만	23	2.57	.896	1,555
		1년이상-3년미만	8	3.25	1,165	
		3년이상-5년미만	18	2.44	.784	
		모태부터	82	2.68	1,005	
		기타(무응답)	81	2.67	.87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인터넷 중독	금단	1년미만	23	8.43	1,927	2,970*
		1년이상-3년미만	8	7.75	1,832	
		3년이상-5년미만	18	7.72	2,445	
		모태부터	82	7.35	2,306	
		기타(무응답)	81	7.94	2,257	
	내성	1년미만	23	6.04	2,688	1,594
		1년이상-3년미만	8	8.00	2,268	
		3년이상-5년미만	18	5.44	2,502	
		모태부터	82	6.66	2,616	
		기타(무응답)	81	6.73	2,763	

*p < .05

〈표 12〉 교회 출석 기간에 따른 공존병리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공존 병리	공존병리 전체	1년미만	23	67.57	14,569	1,867
		1년이상-3년미만	8	73.38	12,894	
		3년이상-5년미만	18	61.83	16,184	
		모태부터	82	61.26	15,452	
		기타(무응답)	81	66.98	18,186	
	불안	1년미만	23	18.65	4,677	.813
		1년이상-3년미만	8	20.38	3,543	
		3년이상-5년미만	18	17.22	4,735	
		모태부터	82	17.30	5,495	
		기타(무응답)	81	17.81	5,190	
	우울	1년미만	23	14.61	3,870	2,244
		1년이상-3년미만	8	16.38	5,236	
		3년이상-5년미만	18	12.83	3,869	
		모태부터	82	12.88	3,936	
		기타(무응답)	81	14.53	4,676	
	충동성	1년미만	23	18.00	4,748	1,515
		1년이상-3년미만	8	18.88	3,182	
		3년이상-5년미만	18	16.83	4,396	
		모태부터	82	15.91	4,730	
		기타(무응답)	81	17.60	5,309	
공격성	1년미만	23	16.30	4,537	1,786	
	1년이상-3년미만	8	17.75	3,919		
	3년이상-5년미만	18	14.94	5,985		
	모태부터	82	15.16	4,542		
	기타(무응답)	81	17.05	5,575		

(4) 구원의 확신에 따른 차이

구원의 확신에 따라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다.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의 금단, 공존병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종교적 안녕의 경우 F통계값이 76,978, 유의수준 .01에서, 실존적 안녕의 경우 F통계값이 13.729, 유의수준 .01에서, 금단의 경우 F통계값이 3.596, 유의수준 .05에서, 불안의 경우 F통계값이 5.994, 유의수준 .01에서, 우울의 경우 F통계값이 7.167, 유의수준 .01에서, 충동성의 경우 F통계값이 3.791, 유의수준 .05에서, 공격성의 경우 F통계값이 4.639,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집단은 영적 안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금단, 우울, 충동성, 공격성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진다.

<표 13> 구원의 확신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영적 안녕	영적 안녕 전체	예	101	79.08	14.429	46.273**
		아니오	29	54.69	13.596	
		모르겠다	77	60.64	9.623	
		무응답	5	57.60	7.335	
	종교적 안녕	예	101	40.16	7.864	76.978**
		아니오	29	20.90	7.370	
		모르겠다	77	28.49	5.413	
		무응답	5	28.20	4.147	
	실존적 안녕	예	101	38.92	7.358	13.729**
		아니오	29	33.79	9.612	
		모르겠다	77	32.14	6.939	
		무응답	5	29.40	3.782	

**p < .01

〈표 14〉 구원의 확신에 따른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전체	예	101	24.71	6.674	.616
		아니오	29	25.41	5.871	
		모르겠다	77	25.29	6.409	
		무응답	5	21.60	4.615	
	일상생활장애	예	101	8.06	2.618	.542
		아니오	29	7.83	2.421	
		모르겠다	77	7.75	2.445	
		무응답	5	6.80	2.490	
	가상세계지향성	예	101	2.58	.852	1.585
		아니오	29	2.86	.953	
		모르겠다	77	2.82	1.121	
		무응답	5	2.20	.447	
	금단	예	101	7.33	2.311	3.596*
		아니오	29	8.34	2.023	
		모르겠다	77	8.32	2.048	
		무응답	5	8.20	3.493	
내성	예	101	6.74	2.730	1.431	
	아니오	29	6.38	2.555		
	모르겠다	77	6.39	2.540		
	무응답	5	4.40	.894		
공존 병리	공존병리 전체	예	101	60.20	14.100	6.655**
		아니오	29	63.76	18.041	
		모르겠다	77	70.64	17.457	
		무응답	5	72.40	14.082	
	불안	예	101	16.88	5.078	5.994**
		아니오	29	16.03	5.018	
		모르겠다	77	19.51	4.841	
		무응답	5	20.80	4.494	
	우울	예	101	12.55	3.571	7.167**
		아니오	29	13.93	4.488	
		모르겠다	77	15.43	4.649	
		무응답	5	14.60	3.286	
	충동성	예	101	15.93	4.665	3.791*
		아니오	29	16.97	5.395	
		모르겠다	77	18.17	4.697	
		무응답	5	19.80	4.550	
공격성	예	101	14.83	4.188	4.639**	
	아니오	29	16.83	5.844		
	모르겠다	77	17.53	5.567		
	무응답	5	17.20	3.114		

*p < .05 **p < .01

3)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의 관계

(1)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종교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 간의 상관계수는 $-.262$ 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실존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에서 가상세계지향성 간의 상관계수는 $-.152$ 로 유의수준 $.05$ 에서, 실존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 간의 상관계수는 $-.288$ 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실존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159$ 로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실존적 안녕은 부적 상관을 이루고,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은 모든 영적 안녕과 부적 상관을 이룬다. 영적 안녕은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금단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

	영적 안녕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인터넷 중독	일상 생활 장애	가상 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영적 안녕	1							
종교적 안녕	.914**	1						
실존적 안녕	.867**	.590**	1					
인터넷 중독	-.134	-.087	-.159*	1				
일상생활장애	.004	.046	-.048	.862**	1			
가상세계지향성	-.158*	-.133	-.152*	.666**	.521**	1		
금단	-.307**	-.262**	-.288**	.567**	.188**	.276**	1	
내성	-.010	.017	-.040	.887**	.797**	.524**	.248**	1

* $p < .05$ ** $p < .01$

(2) 영적 안녕과 공존병리 간의 관계

영적 안녕과 공존병리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6>와 같다.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종교적 안녕과 우울 간의 상관계수는 $-.279$ 이고, 충동성 간의 상관계수는 $-.184$ 이며, 공격성

간의 상관계수는 $-.263$ 으로서 모두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실존적 안녕과 불안 간의 상관계수는 $-.382$ 로, 우울 간의 상관계수는 $-.544$ 이고, 충동성 간의 상관계수는 $-.416$ 이며, 공격성 간의 상관계수는 $-.434$ 으로서 모두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영적 안녕이 높아질수록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의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존병리를 낮추는데 영적 안녕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16〉 영적 안녕, 공존병리의 상관관계

	영적 안녕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공존 병리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영적 안녕	1							
종교적 안녕	.914**	1						
실존적 안녕	.867**	.590**	1					
공존병리	-.404**	.236**	-.514**	1				
불안	-.250**	-.094	.382**	.835**	1			
우울	-.445**	.279**	.544**	.870**	.675**	1		
충동성	-.323**	.184**	.416**	.839**	.547**	.646**	1	
공격성	-.381**	.263**	.434**	.878**	.619**	.692**	.681**	1

* $p < .01$

(3)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 간의 관계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7〉와 같다.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는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 불안 간의 상관계수는 $.268$ 로, 우울 간의 상관계수는 $.340$ 이고, 충동성 간의 상관계수는 $.324$ 이며, 공격성 간의 상관계수는 $.288$ 으로서 모두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인터넷 중독이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과 공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일상 생활 장애	가상 세계 지향성	성 금단	내성	공존 병리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인터넷 중독	1									
일상생활장애	.862**	1								
가상세계지향성	.666**	.521**	1							
금단	.567**	.188**	.276**	1						
내성	.887**	.797**	.524**	.248**	1					
공존병리	.354**	.301**	.350**	.222**	.259**	1				
불안	.268**	.237**	.239**	.188**	.177**	.835**	1			
우울	.340**	.276**	.360**	.207**	.255**	.870**	.675**	1		
충동성	.324**	.275**	.292**	.176*	.269**	.839**	.547**	.646**	1	
공격성	.288**	.243**	.317**	.190**	.191**	.878**	.619**	.692**	.681**	1

*p < .05 **p < .01

Ⅲ. 닫는 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높았고, 공존병리의 하위변인인 우울과 공격성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중독 정도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의⁷⁵⁾ 결론과도 일치한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⁷⁶⁾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75) 박민희·진해옥,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14권3호(2013): 1291.

76) 윤현민·박성연,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인간생활환경연구소」제4권(2005): 13-15.

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함으로써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채팅, 동호회 같은 사회적 활동과 게임, 정보탐색 등 비사회적 영역활동을 많이 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정서가 풍부하고 민감한 특징을 지닌 연령대인 만큼 우울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은 영적 안녕의 평균이 높았고, 금단, 우울, 공격성은 평균은 낮았다. 교회 출석 기간은 출석 기간이 길수록 영적 안녕의 평균이 높았고, 출석 기간이 짧을수록 금단의 평균이 높았다. 구원의 확신 있는 학생의 영적 안녕의 평균이 월등하게 높았던 반면 금단, 우울, 충동성, 공격성의 평균이 확신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 낮았다.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의 경우 출석 기간이 길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낮았다. 이는 금단이 모든 중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증상임을 감안할 때 종교 및 신앙생활이 중독을 낮추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과 인터넷 중독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종교적 안녕은 금단과 부적 관계를, 실존적 안녕은 금단, 가상세계지향성과 부적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존적 안녕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의⁷⁷⁾ 결과와도 일치하며, 영적 안녕 정도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연구⁷⁸⁾와도 긴밀히 관계된다. 영적 안녕이 다른 중독 영역에서 통제력을 형성

77) 신성만 외,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1622.

78) 정숙희 · 신성만,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143.

하는 자원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어져 오는 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서 영적 안녕을 보호변인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적 안녕과 공존병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교적 안녕은 우울, 충동성,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이루었고, 실존적 안녕은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모두 부적상관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적 안녕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이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나⁷⁹⁾ 영적 안녕이 불안, 우울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⁸⁰⁾ 더불어 종교적 안녕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와⁸¹⁾ 모두 결과를 같이 한다. 이는 영적 안녕이 중독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병리적 증상에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는 각각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과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이 모두 정적인 상관을 이루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⁸²⁾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과다 사용군이 높은 불안, 우울을 보인다는 연구,⁸³⁾ 인터넷 중독 점수와 우울, 충동성의 점수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⁸⁴⁾ 인터넷 중독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충동성,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⁸⁵⁾ 등의 연구와 맥을 같

79) 서경현 외,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과 사회불안”, 609-611.

80) 허현나,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17-18.

81) 채유경,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 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189-209.

82) 김지년,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상관 관계 연구: 구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5.

83) 이석범 외,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1174.

84) 이대환 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과의 연관성”, 10-18.

85) 정현웅·오세덕,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 601.

이 한다. 특히 가상세계지향성과 우울, 공격성 간의 정적인 상관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보다 깊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인터넷 게임으로 폭력적인 장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가상세계에서 표현했던 공격성이 현실에 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실제 생활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자연스레 높아져, 이러한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 반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연구⁸⁶⁾처럼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일반 고등학생보다 교회를 출석하는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 수준이 높고, 인터넷 중독에서 금단과 공존병리의 우울 및 공격성은 낮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앙 및 영성생활이 금단이나 우울, 공격성 같은 위험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함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안녕은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에 부적인 상관을 이루어 영적 안녕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영적 안녕이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으로 비롯된 청소년 문제에 해결방안으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힘으로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다. 더불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긴 근원적인 불안이나 영적 침체로 인한 자포자기, 무가치함과 같은 우울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경험으로 삶의 관점에 영

86) 윤현민 · 박성연,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13-15.

향을 주는 종교적 안녕과 자신, 이웃,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실존적 안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위기에 대처할 자원이 된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중독이나 병리적 증상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일상 가운데 견고한 영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적 안녕감이 견고할 때,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발견하고 고난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과 공존병리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아정체감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영적 안녕 증진을 위해서 기독교 상담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과제가 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의 기독교등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2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교회부서, 기독교계 학교, 일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해보았는데,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정적 또는 부적인 상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간에 질적 연구나 매개 효과 등 다양한 관점으로 상세하게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영적 안녕을 증진시켜 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강연정.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39-75.
- 강연정. “영적 안녕과 전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3호(2007): 13-43.
- 김교헌 외.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서울: 학지사, 2009.
- 김남희.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9.
- 김동일 외.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4권4호(2013): 2162-2181.
- 김동태. “영성훈련이 청소년의 불안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3.
-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서울: 이레서원, 2003.
- 김옥련.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이 우울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3.
- 김은정.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 김지년.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상관 관계 연구: 구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2005.
- 김효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02.
- 남영옥 · 이재모.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보호요인”.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13권 2호(2006): 21-36.
-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정책보고서(2013.6). 2014년9월30일 해당사이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71>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및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2013.6) 2014년9월30일 해당사이트: <http://www.msip.go.kr>
- 박미하 · 김은혜.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

- 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 (2012): 125-156.
- 박민희·전해옥.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3호(2013): 1283-1293.
- 박승민 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13권 2호(2005): 3-14.
- 박승민 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2011.
- 서경현 외.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과 사회불안”.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3호(2007): 599-617.
- 성한기·안경옥.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 지각”.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2005): 475-488.
- 신성만 외.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2권5 호(2011): 1613-1628.
-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105-113.
- 양돈규. 「심리학사사전」. 서울: 학지사, 2003.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인식도 연구”. 연구보고서(2010.10), 2014년 9월 30일 해당사이트: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82000-201000012
-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 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9-44.
- 윤현민·박성연.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제4권(2005): 1-18.
- 이대환 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과의 연관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7권 1호(2006): 10-18.

- 이석범 외.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학회」 제40권 6호(2001): 1174-1184.
- 이진화. “영적 안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11.
- 이혜경. “심상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의 금주가능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0.
- 이희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제3권(2009): 101-126.
- 임향숙. “아버지와의 관계와 종교가 청소년의 우울성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2003.
- 정숙희 · 신성만.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제6권(2008): 121-148.
- 정형웅. “인터넷 중독이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2006.
- 정현웅 · 오세덕.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 2호(2008): 601-614.
- 조제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3권 1호(2013): 321-351.
- 주애란 · 박인혜. “중학생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스트레스 및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 한국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2005): 37-57.
- 채유경.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 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7권2호(2005): 189-209.
- 최해림.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권 1호(2001): 1-13.
- 한경옥 ·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296-323.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2014년 9월 30일 해당사이트: <http://www.iapc.or.kr/>

- 허현나.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02.
- 황환. “영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text revision(DSM-IV-TR)*. 이근후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서울: 하나의학사, 2004.
- Alex, S. Hall, & Jeffrey Parsons. “Internet Addiction: College Student Case Study Using Best Practices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 (2001): 312–327.
- Banks, R. “Health and Spiritual Dimension: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0, no. 4 (1980): 195–202.
- Beck, A. T.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 Brink, T. L. “Depression and Spiritual Formation.”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4 (1993): 381–394.
- Burkhardt, M. A.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 no. 3 (1989): 69–77.
- Carson, Johnny and Soeken Grimm. “Hope and Its Relationship to Spiritual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6, no. 2(1987): 159–167.
- Cleckley, H. C.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1967.
- Corsini, R. J.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1,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Press, 1994.
- Davis, R. A. “A Cognitive–Behavior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 no 2 (2001): 187–195.
- Ellison, C. W. “Spirituality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 no. 4 (1983): 43–49, 330–340.
- Goldberg, I.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on April 20, 2011. Available at: <http://www.cog.brown.edu>.
- Griffiths M. D.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no.1(1996).
- Griffiths M, D.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PA Annual Convention, Chicago, 1997.
- Griffiths M, D. & N. Hunt.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82, no. 2 (1998): 475-480.
- Griffiths M, D.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 (1999): 246-255.
- Hart, D. Archibald.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온누리회복사역본부 역. 『참을 수 없는 중독』. 서울: 두란노, 2008.
- Hart, D. Archibald. *Counseling the Depressed*, 심상권 역. 『우울증상담』. 서울: 두란노, 1996.
- Hill, L. & N. Smith. *Self-Care Nursing: Promotion of Health*. New York: Appleton & Lange, 1985.
- Hunsberger, Bruce, Susan Alisat, S. Mark Pancer, & Michael Pratt.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s,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1996): 39-49.
- Iftene, F. & N. Roberts. "Internet Use in Adolescents: Hobby or Avoidan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9, no. 11 (2004): 789-790.
- Jung, Carl. "The Bill W. -Carl Jung Letters." *Revision* 10, no. 2 (1987): 19-21.
- Logue, A. W.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1995.
- Marigliani, Sharon V. "The Relationship between Asp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Identity Development in Male & Female College Student." Ph.D. diss., Seton Hall University, 1996.
- May, Gerald G. *Addiction and Grace*.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8.
- Meier, Paul D.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안경승, 이은규, 강경미, 한재희, 박행렬 공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CLC, 2004.

- Moberg, D. O. "Spiritual Well-Being in Late Life." In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 Policy*. Ed. J. F. Gubrium.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74.
- Neal, Connie W. *Your 30-Day Journey to Beating the Blues*.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1992.
- Paloutzian, R. F. &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Eds. L. A. Peplau & D. Perman. New York: Wiley Interscience, 1982.
- Peterson, L. R. & A. Roy.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1985): 49-62.
- Pollner, M.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1989): 92-104.
- Ray, O. & C. Ksir. *Drugs, Society, and Human Behavior*. 10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2004.
- Seligman, M. E. P. "Why is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In *Contemporary Psychoanalyt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Ed. R. E. Ingram. New York: Plenum, 1990.
- Spielberger, Charles 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 Suler, J. R. "Psychotherapy in Cyberspace: 5-Dimension Model of Online and Computer-Mediated Psychotherapy."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 no.2 (2000): 151-160.
-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no. 3 (1996): 237-244.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Internet Addiction
and Comorbidity in High School Student.

Su Hyun Kim & Yeon Jeong Kang

Kosi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concerned to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piritual wellbeing and internet addiction or comorbidity. Using questionnaire method, the study is based on 212 student's answers in Christian high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spiritual wellbeing, Internet addiction, and comorbidity according to the general attribute. The students who go the church have been better spiritual wellbeing level and who don't go to church have been higher internet addiction and comorbidity. When the period of attending church is longer, their spiritual wellbeing level was higher. But the period is short their level of withdrawal symptoms of addition and comorbidity was higher. If the students have the conviction of salvation in Christianity, their spiritual wellbeing level was higher and withdrawal symptoms was lower.

Second,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Internet addition or comorbidity there was meaningful connection. In relations of wellbeing and Internet addition, there was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and between the Internet addition and the comorbidity has meaningful static correlation.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piritual wellbeing, internet addition or comorbidity has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spiritual activity. Moreover, the higher spiritual wellbeing leads lower Internet addition and comorbidity. For spiritual wellbeing cause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omorbidity.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 in understanding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internet addition or comorbidity. And discovering necessity that a society need to concern high school student's spiritual wellbeing to protect internet addition disorder and comorbidity.

Key words: teen-ages, spiritual wellbeing, internet addiction, comorbidity, spirituality